



Original Article

Factors Influencing Self Confidence during Delivery in Laboring Women

Lee, Mi Kyeong¹⁾

1)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산부의 분만 자신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 미 경¹⁾

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self confidence during delivery in laboring wome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elf confidence for delivery. **Method:**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166 women who were admitted to a delivery room at C hospital in Seoul from July 1 to October 31, 2002.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self confidence scale, anxiety scale, knowledge of childbirth scale and graphic rating scale.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 PC+ program. For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selection method was used. **Result:** Self confidence during delivery had negative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anxiety, and positive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endurance of pain, husband support during pregnancy, age and parity. Anxiety was the highest factor influencing self confidence for delivery(40.0%). Endurance of pain, husband support during pregnancy and age accounted for 49.0% of self confidence in laboring women. **Conclusion:** The factors influencing self confidence during delivery

were anxiety, endurance to pain, husband support during pregnancy and age. Further studies need to be done to identify interventions for overcoming on anxiety, promoting endurance of pain, and increasing husband support during pregnancy.

Key words : Labor, Self confidence, Support

서 론

최근의 분만 문화는 불안, 공포, 두려움이 아닌 주어진 분만 환경에서 산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산부와 태아의 힘으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산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적 차원과 신체적, 정신적인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분만과정에 산부와 가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드러운 출산'을 추구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임부들은 분만과정에서 진통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분만통증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산부가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능동

투고일: 2005년 1월 19일 1차심사완료일: 2005년 1월 31일 2차심사완료일: 2005년 2월 13일 최종심사완료일: 2005년 2월 2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Mi Kyeong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45-802, Hanyang Apt, Apgujung-dong, Gangnam-gu, Seoul 135-904, Korea

Tel: +82-2-545-0585 C.P.: 011-201-0585 E-mail: maternity99@hanmail.net

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데 분만관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만경험에는 능동적으로 분만에 참여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Doering & Entwisle, 1975). 분만시의 통증과 불안을 잘 견디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분만의 힘든 시기동안 잘 대처 할 수 있으리라 스스로 기대할 것이며 그러한 분만에 대한 자신감은 곧 긍정적인 분만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분만은 여성에 있어 정상적인 발달과정이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분만통증과 불안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분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모두 통증을 수반하게 되는데 우리의 의료환경에서는 분만 통증을 생리학적 측면에 치우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산부의 정서적 요인이 분만통증과 관련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산전불안 정도가 분만통증의 지각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Melzack & Wall, 1965)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발생한 정서적 긴장, 피로와 수면부족은 분만 중 통증과 통증의 인지정도를 증가시킨다(Bobak, Lowdermilk, & Jensen, 1995). 또한 높은 수준의 불안을 가진 임산부는 진통기간동안 통증지각 정도가 높으며, 분만이 진행됨에 따라 분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긴장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통증은 또다시 공포와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공포-긴장-통증의 순환고리(fear-tension-pain cycle)가 분만과정 동안에 연속적으로 순환된다(Bobak et al., 1995).

분만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산부나 신생아의 발달적 성숙을 촉진하나 분만과정에 대한 산부의 부정적 경험은 산부나 신생아 및 가족에게 상황적 위기로 작용하는 건강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분만과정에 필요한 여러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분만자신감과 관련된 연구로서 Lowe(1991)는 상태불안, 분만결과에 대한 근심, 통증에 대한 공포, 분만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분만과 관련된 자가평가질문지(Self-Evaluation in labor Questionnaire : SELQ)를 이용하여 산전준비, 연령, 산과력, 자궁경부의 개대정도, 자궁수축의 빈도, 과거 동통 경험, 과거 분만경험, 분만경과 시간 등의 다양한 변수들과 분만 중 여성이 지각한 진통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분만을 잘 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진통은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Crowe와 Baeyer(1989)는 초임부 30명에게 다가올 분만상황을 상상하게 하면서 산전교육 전에 분만 통증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confidence in ability to cope pain)을 시각상사척도(VAS)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분만 통증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임부는 실제로 진통을 덜 느꼈고, 분만 중에 더욱 더 자신감을 유지하여 긍정적인 분만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Chang, Kim과 Kim(2001)은 55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4주간의 태교관점 임부교육 프로그램 시행 후 태아에착정도와 분만자신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산전교육이 분만자신감을 증가시켰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어떠한 요인들이 분만자신감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제시하지 않은 채 교육 효과의 일부로서 분만자신감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산전교육은 단 1회의 교육보다는 4~5주의 훈련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산전교육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산모 경우에는 출산준비교육에 의한 분만자신감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산부의 분만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분만자신감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산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산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분만실에 입원한 산부를 위해서는 분만실 입원시 제공해야할 간호중재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간호중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분만실에 입원한 산부의 분만자신감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긍정적인 분만 경험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분만실에 입원한 산부의 분만자신감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분만실 입원시 산부의 분만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2. 용어정의

1) 분만자신감

분만자신감은 분만과정에 필요한 여러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정상 질식분만(NSVD)을 잘 할 수 있다는 분만에 대한 산부의 자신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Lee(2003)가 15문항, 4점 척도로 개발한 분만자신감 척도를 사용하여 입원시의 분만자신감 정도를 측정한 점수로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60점이다.

2) 상태불안 측정도구

상태불안은 실제적 또는 상상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의 상태불안 척도를 Kim과 Shin(1978)이 20문항, 4점 척도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입원시의 불안정도를 측정한 점수로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다.

3) 분만지식

분만지식 측정도구는 Choi(1983)가 분만생리, 분만과정, 산전운동, 호흡법 및 힘주는 법에 관한 지식수준을 진위형 20개의 문항으로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6점이다.

3. 연구의 제한점

연구 대상자가 편의 추출에 의해 선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분만실 입원시 산부의 분만자신감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0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한 P대학 C병원 분만실에 입원한 산부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태기간 37~42주의 산모로서 기혼인자
- 단태이며 두정위인 자
- 경관개대가 2cm 이하인 상태이며 자궁수축 간격이 5분 이상인 상태로 입원한 자
- 임신시 합병증이나 산과적 문제점이 없으며 정상질식분만이 예상되는 자

3. 연구도구

1) 분만자신감

분만자신감은 Lee(2003)가 15문항, 4점 척도로 개발한 분만자신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91$ 이다.

2) 불안 측정

입원시의 상태불안은 Spielberger의 상태기질 불안척도 중에서 Kim과 Shin(1978)이 20문항, 4점 척도로 번역한 상태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20문항 4점 척도로 부정적인 10개 문항은

“대단히 그렇다”는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주었으며 긍정적인 10개 문항은 “대단히 그렇다”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으로 역환산 하였다.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8$ 이다.

3) 분만지식

분만지식 측정도구는 Choi(1983)가 분만생리, 분만과정, 산전운동, 호흡법 및 힘주는 법에 관한 지식수준을 진위형 20개의 문항으로 개발한 도구를 최근의 출산준비교육내용과 분만 상황에 맞게 분만실 수간호사, 분만실 간호사, 박사과정생, 간호대학 모성전공 교수와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6점이다. “예”, “아니오”로 답한 후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4) 통증에 대한 참을성

본 연구에서는 분만실 입원시 산모의 주관적인 통증에 대한 참을성 정도를 도표평정척도(graphic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10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에 대한 참을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0cm의 수평선을 10등분하여 왼쪽은 “참을성이 거의 없음”, 오른쪽은 “매우 참을성이 많음”으로 하여 산부가 말로서 점수를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0점이다.

5) 임신 중 배우자 지지

본 연구에서는 분만실 입원시 산모가 이번 임신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지정도를 도표평정척도(graphic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10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0cm의 수평선을 10등분하여 왼쪽은 “거의 지지를 받지 않음”, 오른쪽은 “매우 지지를 받았음”으로 하여 산부가 말로서 점수를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0점이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다.

- 일반적·산과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입원시 분만자신감, 상태불안정도, 분만지식, 통증에 대한 참을성 정도, 임신 중 배우자 지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고 산부의 분만자신감 결정요인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

법(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변수 선택은 단계적 선택법(stepwise selec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 분만자신감, 상태불안정도, 분만지식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93명(56.0%)이며 31세 이상은 73명(44.0%)이었다. 임신 주수는 40주 이하 81명(48.8%), 40⁺주 이상이 85명(51.2%)이고 대상자 중 135명(81.3%)이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가족의 수입정도는 200만원~299만원이 73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산과력을 살펴보면 초산모가 126명(75.9%)이고 경산모가 40명(24.1%)이었다. 이들 중 102명(61.4%)은 임신 중에 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분만 자신감, 불안, 분만 지식, 통증에 대한 참을성, 임신 중 남편의 지지 정도

분만실 입원시 분만 자신감정도는 22점에서 60점에 분포하였으며 평균적으로 41.6(±7.3)점을 나타냈다. 상태불안 정도는 21점에서 67점에 분포하였고 평균 44.4(±8.9)점이었고, 분만지식은 10점에서 16점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14.0(±1.4)점이었다. 평소 자신의 통증에 대한 참을성 정도는 5.8(±1.9)점이고 임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66)

Variables		f	%
Age(year)	Under 30	93	56.0
	Over 31	73	44.0
Gestational age(week)	Under 40	81	48.8
	Over 40 ⁺	85	51.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1	18.7
	College and higher	135	81.3
Income(won)	Under 2,000,000	34	20.5
	2,000,000 - 2,990,000	73	44.0
	Over 3,000,000	59	35.5
Parity	Primipara	126	75.9
	Multipara	40	24.1
Prenatal class attendance	Yes	102	61.4
	No	64	38.6

중 남편의 지지 정도는 7.7(±1.8)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분만 자신감과 제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분만실에 입원한 대상자의 분만자신감과 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분만 자신감과 입원시의 불안은 $r = -.63(p = .00)$ 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분만자신감과 분만에 대한 지식정도는 $r = -.00(p = .96)$ 으로 두 변수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분만 자신감과 통증에 대한 참을성은 $r = .34(p = .00)$ 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도 $r = .32(p = .00)$ 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의 나이는 $r =$

<Table 2> Mean score of self confidence for delivery, anxiety, knowledge of childbirth, endurance to pain and husband support during pregnancy

	M±SD	Possible range	Obtained range
Self confidence for delivery	41.6±7.3	15 - 60	22 - 60
Anxiety	44.4±8.9	20 - 80	21 - 67
Knowledge of childbirth	14.0±1.4	0 - 16	10 - 16
Endurance to pain	5.8±1.9	0 - 10	2 - 9
Husband support during pregnancy	7.7±1.8	0 - 10	5 - 1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 confidence for delivery and other variables

	Self confidence	Anxiety	Knowledge of childbirth	Endurance to pain	Husband support	Age	Parity
Self confidence	1.00						
Anxiety	-.63(.00)	1.00					
Knowledge of childbirth	-.00(.96)	-.02(.84)	1.00				
Endurance to pain	.34(.00)	-.23(.00)	.11(.16)	1.00			
Husband support	.32(.00)	-.23(.00)	.04(.65)	.18(.02)	1.00		
Age	.30(.00)	-.25(.00)	.01(.93)	.02(.85)	.08(.34)	1.00	
Parity	.19(.01)	-.17(.03)	-.07(.40)	.09(.24)	-.17(.03)	.43(.00)	1.00

() : P value

.30($p = .00$), 산과력은 $r = .19$ ($p = .01$)로 두 변수 모두 분만자신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즉 분만실에 입원한 산모의 분만자신감은 불안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분만자신감이 높을수록 불안정도는 낮았으며, 통증에 대한 참을성,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 나이, 산과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들 변수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자신감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분만에 대한 지식 정도는 분만자신감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 분만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분만실에 입원한 대상자의 분만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입원시 불안, 통증에 대한 참을성,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 나이, 산과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선형 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만실에 입원한 대상자의 분만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입원시 불안, 통증에 대한 참을성,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 나이, 산과력을 변인으로 단계적 다중 선형 회귀 분석한 결과,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t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입원시 불안, 통증에 대한 참을성,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 나이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을 포함하는 각각의 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입원시 불안정도로서 입원시의 분만자신감을 40.0% 설명하였다($F=107.07$, $p = .00$). 그 다음으로는 통증에 대한 참을성이 4.0%($F=62.45$, $p = .00$),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가 2.0%($F=46.06$, $p = .00$), 나이가 3.0%($F=37.44$, $p = .00$)로 이들 네 변수가 입원시 분만자신감을 49.0%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Effects of variables on self confidence for delivery

Model	B	R ²	F	p
Anxiety	-.42	.40	107.07	.00
Endurance to pain	.73	.44	62.45	.00
Husband support during pregnancy	.66	.46	46.06	.00
Age	.34	.49	37.44	.00

논 의

최근의 분만문화 경향은 산부가 분만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돕고 분만경험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부의 분만에 대한 자신감 정도, 입원시 상태불안, 분만지식 등을 파악하고 분만과정에 필요한 여러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정상 질식

분만을 잘 할 수 있다는 분만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만실 입원시 분만자신감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입원시의 상태불안 정도가 분만자신감을 40.0%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시 분만자신감과 상태불안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결과비교는 어려우나, 임신부의 정서적 요인이 분만통증과 관련이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산전불안 정도가 분만통증의 지각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Melzack & Wall, 1965)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발생한 정서적 긴장, 피로와 수면부족은 분만 중 통증과 통증의 인지정도를 증가시키고(Bobak et al., 1995) 자궁수축과 경관확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Pritchard & Macdonald, 1996)고 하였다. 불안이 높아지면 효과적인 자궁 수축은 감소하며 불편감은 상승하고 다시 불안 상승의 순환은 시작된다(Lowdermilk, Perry, & Bobak, 1999). 따라서 분만에 대한 불안이 높은 대상자들이 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Green, 1993) 분만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산모의 불안정도를 감소시킬 때 분만자신감이 증대되어 통증완화를 위한 중재가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분만을 경험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통증은 신체의 활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결과로서 통증에 대한 역치는 성별, 나이, 사회적 환경, 인종,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비슷하지만(Lowdermilk et al., 1999) 분만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문화적 배경, 통증에 대한 의미, 과거의 경험, 불안, 교육정도, 성격, 통증에 대한 표현방식, 산전교육, 연령, 분만경험, 월경통, 남편의 참석유무, 투약요구, 분만 지식, 분만에 대한 태도 등이며(Chung, 1994) 또한 분만 통증에 대한 불안, 기대, 인지적 평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력(Choi et al., 1999)과 분만통제감, 배우자 지지 등이 있다.

따라서 분만 통증은 통증에 대한 참을성과 산과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자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Devenport-Slack & Boylan, 1974).

통증에 대한 참을성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이전에 통증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산부들은 분만통증의 지각정도가 다소 감소되었으며(Fridh & Gaston-Joansson, 1990) 분만통증에 대한 공포 여부에 따라 통증에 대한 참을성 정도가 달라 cold presser test(CPT)를 했을 때 통증인내시간(pain endurance time)과 통증강도 인지가 차이 있으므로(Saisto, Kaaja, Ylikorkala, & Halmesmaki, 2001) 과거 분만경험이 통증의 역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Hapidou & DeCatanaro, 1992). 그러므로 통증에 대한 참을성은 과거의 통증 경험, 분만경험, 분만 통증에 대한 공포, 월경력 등에 영향을 받아 통증인내 정도와 통증인지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만실 입원시 분만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

로서 상태불안 다음으로 통증에 대한 참을성이 4.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F=62.45, p=.00$) 이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통증에 대한 참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hung, Kim, Ryu와 Na(2002)는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낮았으며 이는 배우자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Chung(1994)은 산전교육시 배우자가 함께 참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분만경험 지각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Mercer(1985)도 남편의 정서적 지지변수가 분만경험지각을 20%이상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는 분만자신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서 분만자신감을 2.0%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F=46.1, p=.00$)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분만통증은 동일한 생리적 원인으로 인한 통증이지만 산부들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다양하며 이들 변수와 함께 분만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산부들은 출산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만족스런 분만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나이는 분만자신감에 영향하는 결정요인으로서 3.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37.4, p=.00$), 산과력은 $r=.19$ 로 분만자신감과 유의한 상관관계($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elzack(1993)이 분만통증 정도는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전에 분만통증을 경험한 산모일수록 분만동안 통증에 대한 참을성이 증가하여 통증을 잘 견딜 수 있으며 분만에 대한 공포는 심리적인 면과 이전 분만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와 경산부는 이전 분만경험에 의해 예상되는 결과를 앞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감소된 반면, 초산부는 신체적 골반의 변화 때문에 경산부 보다 더 강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Walker와 Erdman(1984)은 산전교실에 참여한 99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분만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지식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자신감이 분만 지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산전교육 후 여성들의 자신감이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만에 대한 지식 정도는 분만자신감과 상관관계가 없었는데($r=-.00, p=.96$) 이는 분만실이라는 낯설고 두려운 환경 때문에 임신 중에는 분만에 대해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분만실에 입원한 상황에서는 임신 중에 비해 상태불안 정도가 높아지고 분만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여 두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분만경험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부만의 주관적인 경험으로서 분만실 입원시 불안정도, 통증에 대한 참을성,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나이, 산과력 등이 분만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분만실 입원시 불안 정도가 낮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 통증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고,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를 많이 받았을수록 분만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과거의 통증 경험, 분만경험, 분만 통증에 대한 공포 등 통증 내인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등에 대해 산전교육과 입원 교육시에 충분한 중재가 제공되어 분만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분만실 입원시 산부의 분만자신감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분만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분만자신감과 입원시의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분만자신감과 통증에 대한 참을성,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 대상자의 나이와 산과력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만자신감과 분만에 대한 지식 정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t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입원시 불안, 통증에 대한 참을성,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 나이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을 포함하는 각각의 모형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분만실 입원시 분만자신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입원시의 상태불안 정도이며 통증에 대한 참을성, 임신 중 배우자의 지지 정도, 나이 등 이들 네 변수가 입원시 분만자신감을 49.0%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부의 분만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준비교육이나 입원시 교육을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당면한 분만상황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분만에 배우자를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나 통증 내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분만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Bobak, I. M., Lowdermilk, D. L., & Jensen M. D. (1995). *Maternity nursing*. 4th ed. Mosby.
- Chang, S. B. Kim, K. Y., & Kim, E. S. (2001). Changes of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self efficacy for delivery after the tackyo-perspective prenatal class. *Korean J Women Health Nurs*, 7(1), 7-17.
- Choi, Y. S. (1983).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 childbirth preparation on labor pa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i, Y. S., et al. (1999). *Women Health Nursing*. Soo Moon Sa, Seoul.
- Chung, K. A. (1994). *The effect of childbirth education on labor pain, anxiety and childbirth experience perception of primipar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aegu.
- Chung, I. N., Kim, K. S., Ryu, S. Y., & Na, B. J. (2002). Anxiety of pregnant women and its related factors. *J. Korea Soc Maternal Child Health*, 6(1), 137-146.
- Crowe, K., & Baeyer, C. (1989). Predictors of a positive childbirth experience. *Birth*, 20, 59-63.
- Devenport-Slack, B., & Boylan, C. H. (1974).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hildbirth pain. *Psychosomatic medicine*, 36(3), 215-223.
- Doering, S. G., & Entwisle, D. R. (1975). Preparation during pregnancy and ability to cope with labor and delivery. *Am J Orthopsychiatry*, 45(5), 825-837.
- Fridh, G., & Gaston-Jojansson, F. (1990). Do primiparas and multiparas have realistic expectations of labor. *Acta Obstetrics Gynecology Scand*, 69, 103-109.
- Green, J. M. (1993). Expectations and experiences of pain in labor : findings from a large prospective study. *Birth*, 20(2), 65.
- Hapidou, E. G., & DeCatanzaro, D. (1992). Responsiveness to laboratory pain in women as a function of age and childbirth pain experience. *Pain*, 48, 177-181.
- Kim, J. T., & Shin, D. K. (1978). A study based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STAI for Korea. *J New Medical*, 21(11), 69-75.
- Lee M. K. (2003). *Effects of San-Yin-Jiao (SP-6) acupuncture on labor pain, delivery time, serum β -endorphin and intensity of uterine contractions in women during lab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owdermilk, D. L., Perry, S. E., & Bobak, I. M. (1999). *Maternity Nursing (5th ed.)*. 305-327. Mosby.
- Lowe, N. K. (1991). Maternal confidence in coping with labor : A self-efficacy concept.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20, 457-463.
- Melzack, R., & Wall, P. D. (1965). Pain Mechanisms. A New theory, *Science*, 150, 971.
- Mercer, R. (1985). Relationship of the birth experience to later mothering behaviors. *J. Nurs Midwifery*, 30, 204.
- Pritchard, T., & Macdonald, P. C. (1996). *Obstetrics(20th ed.)*.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
- Saisto, T., Kaaja, R., Ylikorkala, O., & Halmesmaki, E. (2001). Reduced pain tolerance during and after pregnancy in women suffering from fear of labor. *Pain*, 93, 123-127.
- Walker, B., & Erdman, A. (1984). Children education programs :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idence and knowledge. *Birth*, 11, 103-108.